

보도자료

2010년 6월 10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(☎750-2770)
개인정보보호윤리과 허은영 사무관(☎750-2771) yangkinice@kcc.go.kr

방통위, LBS 활성화를 위한 전기 마련

-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·제도 개선, 인프라 구축 등 진흥 추진
-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권 신설 및 신고 체계 고도화 추진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: 최시중)는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수용하여 LBS(위치기반서비스 : Location Based Service)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도를 높이며, 합리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추진하고자 「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」을 10일 발표했다.

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LBS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으로 국내 LBS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·신체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은 ‘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’이라는 비전 아래, ▶LBS 산업 육성 ▶사회안전망 고도화 ▶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, 법·제도 개선, 산업지원 기능 강화, 측위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화,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.

LBS 산업육성 방안에서는 ▶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·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등 법·제도를 개선하고, ▶LB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위치 정보 DB를 공동 구축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위치측정 인프라를 확충하며, ▶LBS 서비스 공모전 개최 등을 LBS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. 또한 ▶위치측정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T-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 개발, GPS/Wi-Fi 복합측위 칩셋 등을 개발하고, Wi-Fi, CDMA, T-DMB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실내외 끊임없는 u-위치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.

< LBS 산업육성 방안 >

구 분	내 용
법·제도 개선	•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·신고 및 보호조치 의무 규정을 완화 • 위치정보 중개 사업 도입 등사업 유형 다양화를 추진 • 공정경쟁 환경 조성 관련 규정 신설 •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없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
위치측정 인프라 확충	• 통신사업자, 제조사업자, 포털사업자 등 참여하여 전국적인 Wi-Fi AP 위치정보 DB를 공동으로 구축·운영 • 휴대전화 GPS기능 탑재 의무화 추진 • 지하공간 등의 위치측정 음영지역 해소
LBS 사업 지원	•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자 공동의 애로업무 대행 • LBS 서비스 공모전 개최
위치측정 기술 연구 및 표준화	• T-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, Wi-Fi/GPS 복합측위 칩셋 개발 • Wi-Fi, CDMA, T-DMB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u-위치서비스를 실현

또한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는 ▶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긴급구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. ▶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비상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Wi-Fi AP를 장착하는 방안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.

반면,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▶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, GPS On/Off 기능을 적용하고, ▶긴급구조 기관이 위치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권고할 계획이다. 그리고 ▶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인식제고에 힘 쓸 계획이다.

위치정보에 대한 방통위 투자 및 계획에 따른 민간투자 유도로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,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0,134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. 또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은 연 3,200여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원의 행정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방통위는 LBS 산업이 제조업(단말기), 기반산업(GPS, GIS, Wi-Fi, T-DMB 등), 소프트웨어산업(솔루션, 플랫폼), 콘텐츠산업(SNS, 주변정보 등) 등과 가치사슬을 이루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붙임 :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(요약)

<붙임>

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(요약)

I. 추진 배경

- LBS는 향후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미래형 산업으로 제조업, 인프라 구축 산업, SW산업, 콘텐츠산업 등과 연관되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

※ LBS(Location Based Service, 위치기반서비스) :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

※ LBS시장, '09~'12년까지 300% 이상 성장 전망 (가트너, '09년)

- 위치정보는 재난,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음

※ 소방방재청, 해양경찰청의 위치정보 활용 현황 : 6,847천건('08년), 6,295천건('09년)

- 위치정보 활용의 증가로 프라이버시 노출의 위험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의 위치공개에 욕구도 상존하므로,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

II.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 LBS 시장은 지나친 규제 위주의 법령, 측위 원천기술 부족, 대규모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 지속 등으로 활성화 지연

-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경찰은 위치정보를 이용할 권한이 없음

※ 현재, 경찰에게 위치정보 활용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

- 위치정보 활용 증가 및 측위 정확도 향상에 따라 오·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응 필요

Ⅲ. 비전 및 목표



IV. 추진 내용

□ LBS 산업 육성

- 국내 LBS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 - ▶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이 낮은 사업자, 허가·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
 - ▶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정보 중개사업 도입 등 사업 다양화 추진
 - ▶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 관련 규정 신설
 - ▶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, 사업자 의무사항 및 처벌 규정 완화 등
- 정밀한 위치값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위치측정 인프라 확충
 - 통신사업자, 제조사업자, 포털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무선인터넷 접속점(Wi-Fi AP) 위치정보 DB를 공동 구축·운영
 - ※ LBS 정보DB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중복 투자 방지 및 관리비용 절감
 - 위치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고, 지하공간, 실내공간 등 음영지역 해소 추진
- LBS 활성화를 위해 신규 LBS 발굴 및 사업자의 비즈니스 지원
 - ‘LBS 비즈니스 지원센터(KAIT 內)’ 설립하여 新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LBS 사업자의 공동 애로업무를 대행 등 지원업무 수행
 - ※ 공동 애로업무 : 불법사업자 신고, 위치정보 활용동의 확인 등
- 측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 연구 및 표준화 추진
 - T-DMB를 활용한 위치측정기술, Wi-Fi/GPS 복합측위 칩셋 등 개발
 - u-위치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추진
 - ※ u-위치서비스 : Wi-Fi, CDMA, T-DMB 등 다양한 무선망을 활용한 끊임없는 위치기반서비스

□ 사회 안전망 고도화

-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 추진

※ 관련 문방위 대안법안(정부안 및 최인기·변재일·신상진안 종합), 법사위에 제출 ('10. 4월)

- 위기상황의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긴급구조 체계 마련 추진

※ 고도화된 긴급구조 체계 마련을 위한 TFT 구성·운영 추진 ('11년)

-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이용자가 비상구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용 초소형 Wi-Fi AP를 장착하는 방안 검토·추진

□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

-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을 사업자가 적용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높임

☞ 적용 예 : 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, GPS기능에 대한 On/Off 기능 등

- 긴급구조 기관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,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

※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, 법원의 사후승인을 획득하도록 함

- LBS 산업협회의 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 보호 교육·홍보를 강화

V. 기대효과

- 2012년까지 정부투자 및 민간투자 유도로 9,3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, 10,134명의 고용유발 효과 창출 기대

※ 간접 파급효과 : 3.7조원 물류비 절감(기업: 4천억원, 일반인 3.3조원)

- 사회안전망차원에서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은 3,200여명의 추가 인명 구조 및 연 152억의 행정비용 절감 기대